

나눔의 하모니 울려 퍼진 빛고을

한마음선원 광주지원 주최
소년소녀가장돕기 합창제 성황
출·재가·남녀노소 어우러져
합창·왈츠·음악극 등 펼쳐



소년소녀가장들이 나눔의 한 마음을 펼친 '제5회 한마음선원 불교합창제'는 훈훈한 열기 속에서 성공적으로 회향됐다. 사진은 음악극 '반디의 여행'을 공연하는 어린이 합창단의 모습.

소년소녀 가장과 하나 되고자 하는 마음이 모여 아름답고 가슴 뭉클한 무대를 연출했다.

11월 27일, 광주 5·18 기념문화센터 민주홀에서 열린 '제5회 소년소녀가장돕기 한마음선원 불교합창제'는 그야말로 열광의 도가니였다.

어린이와 부모, 스님과 신도가 함께 꾸민 이번 무대에는 합창, 율동, 왈츠는 물론 음악극까지 다양한 공연이 펼쳐졌다.

'공심공체 돌 아닌 노래'를 주제로 열린 이날 합창제는 한마음선원 광주지원(위원장 해월)이 마련했다. 광주에서 유일하게 남녀 혼성으로 구성된 광주지원 합창단은 '삼세심을 전달하니' '그마를 그대로' '해수관음의 빛' 등 선법가(禪法歌)로 다룬 서로의 마음을 녹였다.

이어 어린이 합창단이 음악극 '반디의 여행'을 공연해 참석자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어린이들은 음악극에서 반디와 지구 친구 물, 불, 바람, 흙의 만남을 통해 모두가 한마음을 밝히려 대중을 향해 '지구환경을 위해 생활속에서 함께 실천하자'고 호소했다.

또한 청년회원들의 화려한 율동이 이어졌고 선택사 유치원, 진주지인 어린이합창단이 찬조 출연해 우레와 같은 박수를 받았다.

매공연이 끝날 때마다 관중석에서는 광주불교사무원 회장 해향 스님, 동구불교협회의회장 지각 스님 등 지역사람 스님들과 불자, 시민 등 1000여명이 박수와 환호로 답했다. 이들과 함께 출연해 '아빠와 왈츠'를 공연한 강경환 거사는 "지난 6개월간 아들과 함께 공연을 준비하면서 소외된 소년소녀 가장과 가족의 소중함을 함께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광주지원은 지난 1997년부터 소년소녀가장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발원하며 자비나눔의 합창제를 펼치고 있다. 그동안 4회에 걸쳐 소년소녀 가장 231명에게 5585만원의 장학금과 생활비를 지원해왔다.

지원장 해월 스님은 "이번에도 모여진 수익금 전액을 소년소녀가장들에게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글·사진/광주=이준엽 기자



딸·아들과 아빠가 하나된 '아빠와 함께 왈츠'.



소년소녀 가장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고자 어른들과 어린이들이 함께 공연하고 있다.

언니위해 모아둔 헌혈증 54매 이웃에게...

당진 서정초등 교사 서미숙씨

"제가 모은 헌혈증이 조금 있는데, 좋은 일에 써 주실 수 있을까요?"

충남 당진 서정초등학교 교사 서미숙씨가 11월 25일 본사로 전화를 걸어왔다. 답답한 목소리로 본사에 헌혈증 54매를 기증하고 싶다는 뜻을 전한 서씨는 본사에 연락하게 된 사연을 전했다.

"큰 언니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유방암으로 9년간이나 고생하면서... 언니를 위해 모은 헌혈증인데 쓰지 못했네요. 그렇지만 다른 분들에게는 필요하겠지요?"

답답했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러나 서씨는 "언니가 생각

이 많이 난다"며 다시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다.

서미숙씨의 언니 고 서경숙씨는 '소문난' 불자, 임종 직전까지 교편을 잡았던 서경숙 씨는 항상 불법에 귀의하면서 서주위에도 전달하려 애썼다고 한다.

그러나 서미숙씨와 형제·자매들은 서경숙씨의 뜻을 함께 하지 못했다. 그러던 중 9월, 서미숙씨는 언니로부터 딸 마도름을 한 장 선물받게 됐다. 바로, 본지에서 '민수줍기 성금 모금' 행사의 일환으로 판매한 일회용 스님의 딸마도였다.

다른 형제들에게도 똑 같이 딸마도가 한 장씩 전달됐다. 이제 남은 삶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을 직감한 서경숙씨가 마지막 희망으로 민수줍기에 참여하면서 형제들에게 불법에 귀의하라며 딸마도를 선물한 것이었다.

그 때부터 서미숙씨는 100일기도를 시작했다. 당진 흥국사에서 매일 새벽 108배를 한 후, 천수경·금강경을 독경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동생의 발심에도 서경숙씨는 11월 1일 세상을 떠났다. 동생의 새벽기도가 60일 정도 됐을 무렵이다.

"처음에 100일기도를 시작했을 때, 언니가 무척 좋아했어. 하루도 빠지지 말고 열심히 하라고 격려하면서요."

이제 12월 13일이면 서경숙씨의 막내, 서미숙씨는 100일기도도 그 날 함께 회향하기로 했다. 이제 다시 볼 수 없는 언니 서경숙씨가 전해준 불심을 가슴에 안은 채, 또 병고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을 돕겠다는 마음을 간직한 채.

"사실 새벽마다 법당이 있는 언니 사진 보는 것도 제겐 참 의미있는 일이었어요. 이제 그렇게 얼굴 볼 날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앞으로 가슴 속에 언니를 찾고, 불자답게 살아가야겠어요."

김강진 기자 kangkang@buddhapia.com

"민수야, 부디 좋은 곳으로 가렴"

본사 나눔의 캠페인 통해 지원하던

백혈병 민수, 투병 7개월만에 세상 떠나



투병 생활 중에도 밝은 웃음을 잃지 않았던 민수. 11월 29일, 모든 고통과 불자들의 염원을 뒤로한 채 세상을 떠났다.

금성 골수성백혈병으로 7개월여 동안 투병을 이어온 민수(4가) 11월 29일 오후 5시 30분, 우리 곁을 떠나갔다.

6차 약물치료를 마치고 결과를 지켜보며 통원치료를 받고 있던 민수는 11월 28일, 구토와 복통을 호소하며 부산대학병원에 입원한 지 이틀만에 아빠 엄마의 손을 놓고 몸을 벗었다.

백혈구 수치가 지난 4월 처음 치료를 시작했을 당시보다 높은 10만까지 올라갔던 민수. 약물치료 부작용으로 예상되는 간출혈까지 겹쳐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말았다. "뚝한 약물치료를 받으면서도 늘 웃기만 하던 민수였는데... 민수가 바다를 좋아했으니까 바다로 보내 줄 겁니다. 비록 민수는 갔지만 그동안 도움을 주셨던 많은 분들에게 뭐라고 감사해야 할지..." 민수 아버지 김형찬씨는 끝내 말을 잊지 못했다.

그동안 민수줍기에 함께 했던 부산 대원정사 양재형 법사를 비롯 대원정사 열불봉사 모임의 신도들은 11월 30일 부산대학병원 영안실 빈소를 찾아 아미타경, 무상계 등을 염불하며 민수의 극락왕생을 기원했다. 양 법사 등은 또, 민수의 입관·발인 등 장례절차 동안 각종 의식을 집전해 주었다. 부산 대원정사는 민수 가족과의 상의를 거쳐 민수의 위패를 대원정사에 모시고 49재를 병행하기로 했다.

양재형 법사는 "민수를 위해 마음을 모아왔지만 인연이 다했으니 민수의 극락왕생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갑작스런 민수의 소식에 그동안 딸마 그리기를 통해 민수 돕기에 나섰던 일터 스님을 비롯한 불자들도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민수 돕기 성금 모연을 위한 딸마도 100장을 전달하고, 직접 부산대학병원을 찾아 민수를 위로하기도 했던 일터 스님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가 민수 부모님보다 더 마음이 아프지는 않을 것"이라며 극락왕생을 기원했다.

천미희·김강진 기자

생명나눔 12월의 환우 척추종양 이영설 군



생명나눔실천본부의 12월 환우로 선정된 이영설(7·사진) 환아, 생후 3개월에 부산 동아대병원에서 뇌종양 진단을 받아 수술했지만 올해 1월에 악성척추종양이 재발해 한양대학병

원에서 또 다시 제거수술을 받아야 했다.

수술 후 종양은 제거됐지만 영설이는 하반신을 쓸 수 없게 됐다.

불자들의 도움이 절실하다. (02)734-8050

스님신발 아이젠부착 수행화 출시

눈길 빙판길 간단히 아이젠만 열면 안전보행

겨울철만 되면 산속에 계시는 스님께 고통을 주는 것이 눈과 빙판길이다. 매년 많은 스님께서 미끄러져 골절상으로 큰 곤경을 당하곤 한다. 국내 최대의 전문신발 메이킹 상양통상(주)에서 미끄러운 산길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만든 **수행화**는 그림과 같이 평상시에는 아이젠(디퍼펜)방지가 부착되어 있어 눈길 또는 빙판길에서 간단히 아이젠을 열면 걱정없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제작되어 있다. 고품질 천연가죽과 최첨단 신소재인 NOAH-TEX로 제작된 아이젠부착 **수행화**는 발열기능이 있어 외부온도가 영하-10℃일때 신발내부온도를 7.5℃ 상승시켜 겨울에 대단히 따뜻해 두꺼운 양말을 신을 필요가 없다. 99%방수되며 대단히 가벼워 장시간 만행에도 발의 피로가 없는 인체공학적으로 제작된 신발이다. 추운산속에 계시는 스님께 깨끗한 마음과 착한 정성으로 따뜻한 **수행화**를 보시한다면 무명업장을 누이도 **명승년 새해 무량대복**을 받을 것입니다. 출시기념 할인가격 98,000원 전화로 신발사이즈와 주소를 알려주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신형전화(02)735-6921 농협063-12-102911 김남봉

평생 부자지갑 관세음보살 福 지갑 영험

원하는 재물과 땅과 땅속에 있는 보물까지도 얻으리라!

2006 명승년 재운의 해

2006 명승년은 재물과 고통받고 있는 중생들이 고통에서 해방되는 재운이 오는 좋은해다. 관세음보살은 어려움에 처해있는 중생들의 고민과 고통을 해결해주고 소원을 성취시켜주는 부처님이다. 세상사는동안 제일 큰 고통이 재물도 안고 고통으로 이것을 해결하는 영험의 비방이 관세음보살 여의주수진언이다. 재물이 없어 고통을 받고 있는 중생이 관세음보살 여의주수진언을 몸에 지니고 다니면 곧 보배 재물과 땅과 땅속에 있는 보물까지도 얻으며 가지고 있는 재물이 헛되이 나가지 않는 영험을 담고 있는 법구다. 범구제작전문 불공사에서 기도와 축원 불공속에 단단 관세음보살 복지갑은 지갑안에 **재물로 인한 고통을 해결하는 영험의 여의주수진언**을 부착하고 내부에는 단사를 방해하는 잡귀와 악자를 물리치는 **삼고금강저**를 손에

도둑해 놓아 소원을 이루게 했다. 고급 현인 불나눔 가족으로 일반지갑과는 비교 될수 없게 섬세하게 꾸미진 최고급지갑으로 출시 3개월도 안돼 아주 어렵던 사업과 정사가 풀리고, 고민하던 부동산이 팔리고, 부도직전에 귀인을 만나고, 제조업은 만들면 팔리고, 부동산과 증권으로 큰돈을 버는 등, 관세음보살의 영험이 나타나지는 지갑이다. 여성용 불나눔 보라색은 '여성이 항상 지니고 다니면 가정의 번영하고 사업장은 재물이 끊이지 않는다는 뜻을 담고 있다. 전화로 사용하실분의 생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100일간 2006년 명승년 소원성취를 위한 새해 축원불공을 드리 드리며 복지갑은 바로 보내준다. 남성용65,000원 여성용95,000원 전화(02)741-4488 농협032-12-193445 이상하

존경하는분께 사업성공의 선물! 사랑하는 아내에게 평생부자의 선물!

SkyLife 위성방송 무료로 설치해준다.

최고의 화질 세계를 한눈에 난시청 사찰에서도 최고!

디지털위성방송 Sky Life 설치 사후에 크게 늘고 있다. 무궁화3호 위성에서 발신되는 고품질은 국내방송은 물론 세계를 한눈에 볼수 있으며, 기존의 아날로그와 비교할 수 없는 디지털화질영상과 CD수준의 생생한 사운드로 TV를 볼수있고 디지털방송만이 가능한 쌍방향 서비스로 TV를 보면서 리모콘으로 각종게임과 각종정보를 다양한 멀티미디어 컨텐츠로 TV화면을 통해 조작할 수 있다. 123개의 다양한 채널이 수천높은 문화를 만끽할 수 있으며 자녀들의 영어 및 외국어 교육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종전에는 위성방송 인테나를 설치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어 쉽게 볼수 없었지만 이제는 설치비 없이 월시청료 23,000원내년 한 국내디지털 위성 방송에서 바로 설치해 준다. 산간벽지사찰 난시청지연에도 즉시 설치되며, 이사할때에는 전국 어디든 가지고 다닐 수 있고, 본인이 직접 설치할 수 있다. 전화로 설치할 장소와 주소 성명을 알려주면 2일내에 전국 어디든 설치해준다. 12월말까지 Sky Life설치를 신청하는 분께는 가족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수액피치단카드**를 특별선물로 드립니다. 문의전화(02)741-4477

금강저의 영험

협한세상악귀를 화를 미리 쫓는 수호신

왜! 금강저를 가지고 다녀야 하나? 삼고금강저는 인드라신(神)의 밀교의식에 쓰이는 불퇴전의 승리의 수호신으로 면사를 방해하는 악귀와 잡귀를 물리치고 악귀를 화를 미리 쫓으며 영험의 지혜인 금강의 지혜를 받아 승리한다는 부처님 위신력의 법구다. 1분앞도 모르는 협한세상, 납치, 강도, 강간, 유괴, 각종사고등 근심과 걱정속에 사는 현실이다. 군에 있는 자녀, 딸자녀, 경찰관, 직장인, 학생,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 분, 가정주부들 가정과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영험의 수호신으로 여성은 흰드백속에 후생은 가방속에 남성은 지갑속에 또는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있도록 손금처리하여 축원불공을 마치고 불공사에서 전화로 판매하고 있다. 가격25,000원 문의 (02)741-4488